핀테크 지원센터
제4차 Demo day

祝　辭

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. 8. 27(목) 10:00~12:00
전경련 회관 1층 그랜드볼룸

금융위원회 위원장
임　　종　　룡

Ⅰ. 인사 말씀

안녕하십니까?
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.

먼저 **제4차『핀테크 Demo day』개최**를
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행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
정유신 센터장님과 **관계자분**들의 **노고**에 **감사**드리며

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
내외귀빈과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관계자분들께도
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Ⅱ. 「핀테크 육성」- 현황과 평가

핀테크 지원센터가 지난 3월말 개소한 이후
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.

시간의 흐름은 정말 빠르고
변화의 속도는 그보다 **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**.

지난 3월말에만 해도
핀테크가 무엇인지, 핀테크 산업을 왜 육성해야
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회의적 시각이 많았습니다.

그러나 지금은
핀테크라는 시대적 흐름을 **인식**하고
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
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.

최근 10대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
핀테크가 **미래산업을 주도할 메가트렌드 업종**으로
선정된 것은 이러한 **시장의 변화와 흐름**을
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.

여러분!

정부는 **핀테크 육성**을 금년내 가시적 성과를
거두어야 하는 **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**하고
이를 위한 **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**을
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.

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같은 **진입장벽을 완화**하고
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**생태계를 조성**하였습니다.

또 **금융규제의 패러다임**을
핀테크 친화적으로 전환하고
인터넷전문은행, 크라우드펀딩과 같은
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**조속히 가시화** 될 수
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마침 오늘 데모데이 행사에는
다양한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**서비스 소개** 순서가
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앞으로 **크라우드펀딩**이
기업에게는 **사업성 검증과 자금조달의 통로**를
투자자에게는 **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**하는
'창조경제의 토양'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그러나, 핀테크 산업 육성은
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.

우수한 기술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
핀테크 기업이 **지속적인 출현**하고
핀테크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
개척하겠다는 **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노력**이 필요합니다.

다행히, 짧은 시간이었지만
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**핀테크
지원센터의 상담건수**가 **160여건을 넘어섰습니다.**

다수의 금융회사가 **핀테크 전담부서를 설치**하였고
데모데이 등을 통한 **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
제휴와 협력의 사례**도 **증가**하고 있습니다.

다양한 간편결제 모델의 출시와 경쟁,
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**ICT기업과 금융회사간 합종연횡** 등 **시장도 변화의 모습**을 보이고 있습니다.

핀테크 산업의 육성과 핀테크 시대 본격화를 위한 **튼튼한 토대**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
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.

Ⅲ. 「핀테크 육성」 - 앞으로의 과제

여러분!

핀테크는 **출발은 조금 늦었지만**
세계 각국의 그 누구보다 **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**입니다.

또한 정체되어 있는 **금융산업의 재도약**과 **창조경제의 구현**을 위해 **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**입니다.

제가 취임 전 한 회의에서 '절절포'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'규제개혁을 절대절대 포기하지 말자'라는 말이었습니다.

오늘은 **'반반성'**을 얘기하고 싶습니다.
'핀테크 산업 육성, 반드시 반드시 성공합시다!'

정부는 앞서 말씀드린
핀테크 육성을 위한 단계적·체계적 정책들을
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나가겠습니다.

아울러, **여러분들과 힘을 합쳐**
앞으로 이루어야 할 **3가지 과제의 달성**에도
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

우선, **빠른 시일내에**
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공 사례가 나와야 하겠습니다.

이러한 성공사례의 출현은
핀테크기업의 창업과 **핀테크 활용**에 대한 **희망과 자신감**을 불어넣어 **산업육성의 기폭제 역할**을 할 것입니다.

다음달에는 데모데이를 통해 현재 제휴가 진행 중인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관계자분들과의 '핀테크 1박2일'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

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

다음으로는, **한국 핀테크 기술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활성화**되어야 하겠습니다.

선도자의 이득이 큰 핀테크의 속성과
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핀테크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
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
오늘 **핀테크 지원센터와 코트라·특허정보원·
법무법인 태평양간 해외진출 지원 MOU 체결**을
매우 기쁘게 생각하며

한국형 핀테크 서비스가 **글로벌 선두**를 다투고
핀테크로 무장한 한국의 금융이 **전 세계로 영토를
확장**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끝으로 핀테크가 좀 더 친숙하고
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도록
핀테크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.

이러한 홍보노력은 새로운 핀테크 상품과 서비스에
대한 광고효과뿐만 아니라

핀테크에 대한 **일반국민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
수요와 공급 약 측면**에서 **산업육성의 저변을 확충**할
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.

오늘 핀테크 홍보대사로 임시완씨가 위촉된 것을
축하드리며 **한국의 핀테크**가 **빠른 시일내에 완생**으로
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활동을 부탁드립니다.

Ⅳ. 맺음말

여러분!

얼마전 금융위원회는 **금융개혁의 슬로건**을
'글로벌 경쟁력,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'로
정한 바 있습니다.

한국의 금융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
낡고 잘못된 기존 제도와 관행의 혁신과 함께
핀테크라는 **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
성취**가 **필수적**이라고 생각합니다.

금융개혁, 나아가 국가 구조개혁의
중요한 축이 될 **핀테크 산업 육성**을 위해
다 같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제4차 데모데이 개최를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